

학습지교사·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

2016년부터... 30인 이하 중기 퇴직연금기금제 도입

고용률 70% 달성 협의체 구성, '선취업 후학습' 확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규모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방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 장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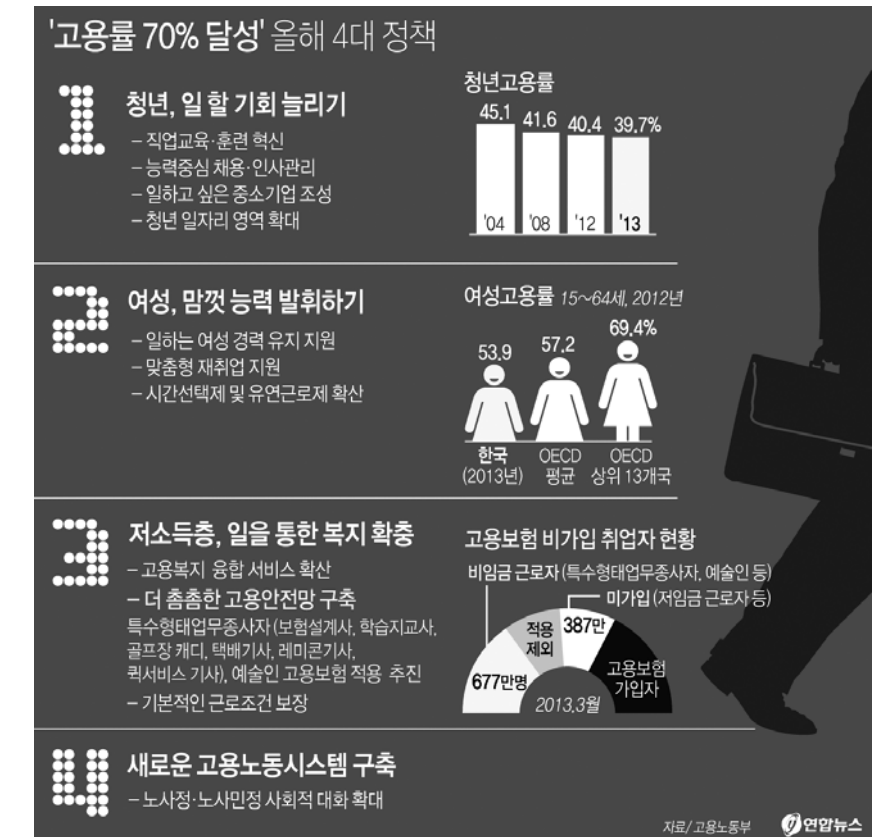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 기준은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규모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 α)을 보장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법정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을 시행한다.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복지종합센터를 9곳 더 늘리고, 2017년까지

전국에 70곳을 설치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10곳 설치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연합뉴스

특진 의사 3분의 1로 줄이고 일반병동 늘린다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10명 중 8명에 이른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자의 '선택권' 없이 환자의 경제적 고통만 키우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축소해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4년간 4조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는 만큼,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도 뒤따라질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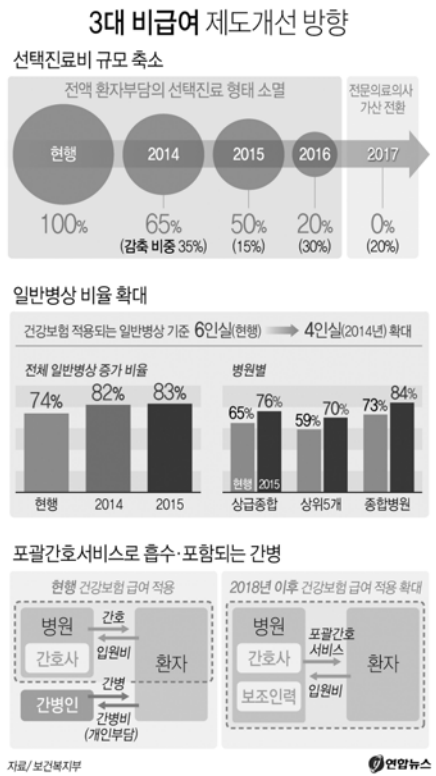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한다는 얘기이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 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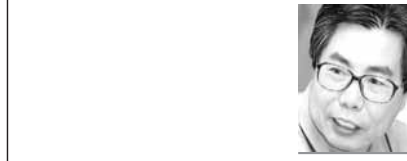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여필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신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 '솔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가 제안됐다.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7000명을 새로 뽑고, 간호대 정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문순태 칼럼

살구꽃 피는 산골마을이 아스라이 보이고 왼쪽으로 기다랗게 이어진 길의 끄트머리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소녀가 서서 울고 있다. 만화가 박재동의 작품 <끝나지 않은 길>이다. 이 그림 앞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눈물을 보였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앙골렘에서 열린 위안부 만화전 <지지 않은 꽃>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경악과 충격이었다.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한국전시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1만7000명에 달했다. 관람객들은 하나같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분노했다.

이번 위안부 만화전은 유럽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차 세계대전 발발 1백주년을 맞아, 여성에 대한 전시(戰時)폭력이라는, 보편적 문제가 유럽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도 일

후, 어느 마을에 부녀자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자료와 지도를 가지고 경찰과 같이 트럭을 몰고 갔다.

마을 사람들을 공터에 모이게 하여 젊은 여자만 트럭에 실었다. 도망가는 여자는 목검으로 내려치고, 울부짖는 여자들을 붙잡아 트럭에 실었다. 17세 이상 미혼자가 대상이었으나 13살 어린소녀와 기혼자도 마구잡이로 끌어갔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땅에 뉘어놓고 트럭에 싣기도 했다.

요시다 세이찌는 마굿간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거나, 임시막사로 된 위안소는 ‘공동편소’와 같다고, 위안부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막사 밖에는 일본군 1개 중대가 줄이어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위안부 규칙에는 하루 12시간 군인을 받으며, 1인당 30분, 낮에는 하급관, 밤에는 장교 차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1인 10분에, 하루 평균 20~30명의 군인을 받았다. 특히 출전을

나는 위안부 사냥꾼 요시다를 만났다

본은 위안부는 강제 동원이 없었고, 조선 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 스스로 위안소로 찾아왔다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오래 전에 위안부 사냥꾼 요시다 세이찌(吉田清治)로부터, 자신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고백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84년 8월, 요시다 세이찌가 한국에 왔다. 노무보국회 야마구치현 본부 동원부장이었던 그는 1983년 <나의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고백수기를 내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참회했다.

이 책은 1989년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되었다. 당시 나는 연극연출가인 심현우 씨 소개로 한국에 온 요시다 세이찌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3시간 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음, 순복음교회 방송실에서 인터뷰 녹화를 했고, mbc TV는 ‘나는 고백한다. 위안부 사냥꾼 요시다 세이찌’라는 타이틀로 50분간 방영했다. 그때 요시다 세이찌는 비교적 진정성 있게 자신이 한국에 와서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난 사실을 고백했다.

1943년 봄, 부하 9명과 함께 한국에 온 그는 1년 동안 머물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2000명에 가까운 위안부를 끌었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노예사냥처럼 강제로 채포했다고 했다. 조선총독부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먼저 목표인원을 현지 경찰에 통보한

앞두고는 “조선 위안부와 관계를 하면 총알이 피해간다.”라는 괴소문 때문에, 당게는 하루에 50명까지 군인을 받을 때가 있었다.

위안소의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는 주먹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좋은 군인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위안부는 심신을 하고 하복부는 피가 흥건하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두려워 문서를 불태우고 위안부를 산채로 매장하기도 했다.

나는 인터뷰 마지막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 위안부를 강제동원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가 “천황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열린다. 일본의 사과를 듣기 위해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오목가슴이 아려온다. 제발 일본은 이 불쌍한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

눈물 흘리는 인간만이 진화할 수 있는 것처럼, 참회하는 국가만이 발전할 수 있다. 참회할 줄 아는 독일은 부강해지고 있으나 참회를 모르는 일본은 점점 쇠소해지고, 불안과 위기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소설가>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좋은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